어디에서 영원한 삶을 지내시겠습니까?

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읽으시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여기에 기록된 내용이 여러분께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하셨을 때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벗어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

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죽은 후 어디로 가게 될 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.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경말씀 요한일서 5: 12-13 말씀에 의하면 "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.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."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기 전에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야 하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몇 가지의 사실들이 있습니다.

1.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.

로마서 3:23에 "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", 야고보서 2:10에 "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", 요한일서 1:8에 "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." 라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.

2.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

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 데, 하박국 1:13에 "주께서는 눈이 심히 정결 하시므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늘", 시편 5:4에"주는 사악한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하리이다"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

3.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모든 죄에 대하여 죄값을 치를 것을 요구합니다

"죄의 삯은 사망이나"(로마서 6:23), 만일 어떤 사람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일에 대한 댓가를 받을 자격을 갖게 되고 바로 그의 일에 대한 댓가로 돈을 받게 됩니다.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 데 그 죄의 댓가가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.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. 요한계시록 20:14-15에 "사망과 지옥도 불 호수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.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 호수에 던져지더라.", 요한계시록 14:10-11에 "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무궁토록 올라가리로다. … 밤이나 낮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."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

4.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를 벌할 수 밖에 없으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매우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 오셔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처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받으며 죽으신 것입니다.

로마서 5:8에 "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." 이사야서 53:5에 "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시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."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 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. 머리에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쓰신 그분을 보십시요. 사람들이 그분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치는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요. 그분의 몸을 채찍으로 때리고 또 때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요. "그를 십자가에 처형하라!, 십자가에 그를 처형하라!"라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지르고 있는 성난 군중의 아우성을 들어 보십시요. 그분의 깨지고 피로 물든 얼굴에 침 뱉는 광경들을 생각해 보십시요. 생살에 못이 박혀질 때와 그분이 달린 십자가가 들리워 질 때 그분의 손과 발에 느껴지는 그 고통을 상상해 보세요.

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로 옮겨 놓으실 때에 예수님은 가장 참혹한 고통을 견디셔야 했던 것입니다 (이사야서 53:6). 참으로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.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.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 지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. 베드로전서 2:22,24에 "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…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" 예수님은 이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 모든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신 후에 "다 이루었다"(완전히 갚았다)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(요한복음 19:30).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신 후 무덤에 묻혔으나 사흘만에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(살아 나심) 것입니다 (고린도전15:4).

5.오직 예수님의 죽음만이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출하여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.

만일 우리가 착한 마음, 선한 일을 행하는 것, 십계명을 지키는 것, 교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,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에 충실함으로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면 분명 우리는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. 그러한 일들은 좋은 것이긴 하지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.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(이사야서 53:11).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 만일 우리의 선한 일들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었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까? 갈라디아서 2:21에 "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." 로마서 3:20에 "그러므로 율법의 해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" 디도서 3:5에 "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" 이사야서 64:6에 "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아서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"